

김 병 구

(金炳球, 조선 중기)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며 필사본으로 된 5책의 문집인 『취죽유고(醉竹遺稿)』가 규장각에 전한다.

冠岳山遊記

甲子仲秋其日壬申 余與余季俞景濂趙元一金道甫 約遊冠岳 歷俞戚敬清朴友綏叔 與之偕 從者卽僮持二十 步出南門 納草履 將向紫霞 路由鷺梁 適有一人 素有雅者 迎拜於路上 因問余輩之行 余曰此去紫霞幾里 答曰二十里許 而日將暮 似不能得抵 帶月作伴 宿于濱江之舍 待朝而發 此亦非一快事耶 余喜而笑 約同宿 歷路拜愍節書院 已而泛舟 上東幕 又拜四忠祠 因仰瞻遺像而退 方夜就寢 聞有聲如風驟雨急 余甚怪之 出而視之 卽江潮也 余與諸益遂徘徊焉 翌日癸亥 蓐食發行 行數里許 雨勢稍緊 不宜前進 行旣發不可止 遂以一笠帽載頭而去 衣巾則與草露俱濕 又前行六七里 有一間茅亭 深深在樹林間 其下白石清溪 映滯左右 窈然別一隩區 又迤折而上 十數里厓峻徑仄 躋攀甚艱 旣登 則群山萬壑屈曲在其下 且西南海色彌漫數百里餘里間 敞豁可眺 此卽三幕望海樓也 入大雄殿 結構宏麗 金佛燦爛 中有一客衲 稍解文字 聰慧可語 問其居 則關東 而嘗遊於金剛 爲余道其景一萬二千峯 森森在眼前 甲戌早朝發行 抵義湘臺 秋雨新霽 風日甚佳 歷望月上佛佛聖諸寺 少憩又前行數里許 忽有一大石立如老佛 號曰劍巖 又折而上數里許 僧指一處 曰此古讓寧大君戀主之所 故謂其臺曰戀主 地益高峻 石亦欹側 擇而後可投足 其上可坐數十人 余忽舉目俯視

則漢陽諸山 歷歷在履底 且島嶼數點 出沒雲海間 江山眞面目 盡在此中 余不覺心神之飛越 然且目力有限 實不能遠視 其云燕齊吳楚者 只憑僧指端而已 又行數步 奇巖怪石層出愈奇 如坐者臥者特秀者雙立者 不可盡記 臺下溪壑泠泠可聽 此卽紫雲菴也 將向京城 路忽闢如馳道 投筇而行 薄暮抵愍節書院 留宿 曉起 采月泛舟 遊於江渚之上 時秋八月旣望之越二日也

관악산유람기

갑자(甲子)년 중추(仲秋) 임신일에 나는 나의 계씨(季氏)와 유경렴(兪景濂)·조원일(趙元一)·김도보(金道甫)와 관악산에 놀러가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친척 유경청(兪敬淸), 친구 박수숙(朴綬叔)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 따르는 하인은 지이십(指二十)이라는 아이였다.

도보로 남문을 나와 짚신으로 바꿔 신고 장차 자하로(紫霞路)로 가서 노량진을 경유하려 하는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노상에서 절하고, 아울러 우리들의 행로를 물었다. 나는 그에게 여기서부터 자하로까지의 거리가 몇 리 쯤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20리쯤 되는데, 날이 장차 저물게 되면 아마 거기까지 당도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달이 뜨거든 나와 동반하여 강가의 객사(客舍)에서 투숙하고, 아침에 출발하는 것이 또한 혼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기뻐 웃으며 그와 동숙할 것을 약속하고 길을 찾아 민절서원(愍節書院)⁹⁴을 참배하고, 이윽고 배를 타고 동막(東幕)에 올라 또 사충사(四忠祠)⁹⁵를 참배하고, 인하여 유상(遺像)을 우러러 보고 나왔다.

밤이 되어 취침하려 하는데 마치 빠른 바람 급한 비가 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매우 괴이해서 나가 보았더니 이는 밀물이 들어오는 소리였다. 나는 여러 친구들과 밀물이 들어오는 강가를 거닐었다.

이튿날 계해일에 일찍 이부자리에서 밥을 먹고 출발하여 몇 리쯤 갔는데, 비

94) 민절서원(愍節書院) : 사육신(死六臣)을 모신 서원.

95) 사충사(四忠祠) : 노론의 사대신(四大臣)인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을 모신 사당.

올 조짐이 짙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치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내친걸음이라 그만 둘 수 없었다. 마침내 샷갓을 머리에 가니, 옷과 건은 풀의 이슬과 함께 젖어 버렸다.

또 전진하여 6~7리쯤 가니 깊은 숲속에 한 칸 모정(茅亭)이 있었다. 깊숙이 숲 속에 있었는데, 정자 아래에는 흰돌과 맑은 시내가 좌우에서 비취주며, 아늑히 자리 잡은 별도의 한 구역이었다.

또 굽은 길로 꺾어져 올라가니, 12~13리 쯤 가파른 언덕에 비탈진 지름길은 잡고 오르기가 심히 어려웠다. 마침내 다 올라가니 여러 산의 만학(萬壑)·굴곡(屈曲)이 그 아래 펼쳐졌다.

또 서남쪽은 해색(海色)이 더욱 가득하여 수 백여 리를 환히 볼 수 있었다. 여기는 바로 삼막사(三幕寺) 망해루(望海樓)였다. 대웅전에 들어가니, 웅장하고 수려하게 지어졌으며, 금불상이 찬란했다. 그 곳에 한 객납(客納: 타지에서 온 승려)이 있었으니 그는 조금 문자를 알고 있고 총명해서 이야기할 만 했다.

그에게 거처를 물었더니 관동에 산다고 했다. 자신은 과거에 금강산에 놀러 갔었는데, 금강산 일만이천 봉이 지금도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잡술일 이른 아침 출발하여 의상대(義湘臺)에 이르렀다. 가을비는 산뜻하게 개이고 바람·해가 볼 만하였다. 망월사(望月寺)·상불사(上佛寺)·불성사(佛聖寺) 등 여러 절에서 조금 쉬고 또 몇 리쯤 전진해 갔다. 문득 노불(老佛)이 서 있는 것 같은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검암(劍巖: 칼 바위)이라 했다.

또 꺾어져 몇 리쯤을 올라가니 승려가 한 쪽을 가리키며, 이곳은 옛날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인주(人主: 世宗)를 그리워하던 곳이며, 그래서 저 대를 연주대(戀主臺)라 한다고 말했다. 지세는 더욱 높고 가파르며 돌 또한 비스듬히 비껴 있었다. 그래서 잘 살피고서야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연주대 위는 몇 십 명이 앉을 만큼 넓었다.

내가 눈을 뜨고 굽어보았더니, 한양의 여러 산이 첩첩히 발밑에 있고, 또 몇 점의 섬[島嶼]들이 구름과 바다 사이에 출몰하는 등 온 강산의 진면목은 다 이 가운데 있었다.

나는 심신이 날듯 홀가분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실로 먼 곳까지 볼 수 없었다. 저 연(燕)·제(齊)·오(吳)·초(楚)를 나열하듯 말한 것

은, 다만 승려의 가리키는 손끝에만 의거할 뿐이다.

또 몇 걸음 걸어가니 기암·괴석이 층층이 솟아나와 더욱 기이했으며, 앉은 듯 누운 것 같고, 우뚝 솟은 것과 한 쌍이 서 있는 것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또 연주대 아래 골짜기의 졸졸하는 물소리도 들을 만 했다. 이곳이 바로 자운암(紫雲菴)이다.

장차 경성(京城)으로 향해 가려는데 문득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길이 트여 있었다. 지팡이를 버리고 걸어가 황혼 무렵에 민절서원에 당도했다. 그 곳에서 투숙하고 새벽에 일어나 달빛에 배를 띄워 한강 위에서 놀았으니 때는 가을 8월 18일이었다.

[취죽유고(醉竹遺稿) 4권]

